SNS의 시초 '싸이월드 감성'에 젖은 방송가

MBC '놀면 뭐하니?', '나 혼자 산다'(왼쪽부터) 등 예능프로그램들이 2000년대 유행한 SNS인 싸이월드 미니홈피 콘셉트를 내세워 연말 특집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사진제공 | MBC

예능 장악한 복고·추억의 무대 꿀잼이네!

MBC '놀면 뭐하니?' 연말 공연 추억의 BGM 부르며 무대 채워
'나 혼자 산다' 화보 달력 인기 팔 토시 등 2000년대 패션 소환

2000년대 추억의 '싸이월드 감성'이 방송가의 연말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이 SNS의 '시초'로 꼽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분위기를 물씬 풍겨내며 당시 유행한 노래와 패션 스타일을 꺼내 들었다. 마침 3200만여 이용자를 보유한 싸이월드가 2019년 10월 문을 닫은 지 2년 2개월 만인 12월17일 서비스를 재개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새로운 문화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놀면 뭐하니?'가 부르는 '도토리 노래'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는 최근 싸이월드 배경음악(BGM)을 주제로 내세우는 연말 특집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12월15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센터에서 여는 '참을 만큼 참았어'(가제) 공연으로,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노래로 무대를 채운다. 유재석, 정준하, 하하, 신봉선, 이미주 등 고정 출연자와 함께 또 다른 스타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다.

싸이월드를 주제로 한 공연은 시청자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앞서 4일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바이브의 '그남자 그여자',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에픽하이와 윤하의 '우산' 등 싸이월드의 대표 BGM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제작진은 시청자 요청 사항을 토대로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 측과 논의를 거쳐 공연을 기획했다. 현재 출연 라인업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MBC '나 혼자 산다'도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2022년 화보 달력을 통해 '싸이월드 감성'을 살려냈다. 전현무, 기안84, 박나래, 샤이니 키, 마마무 화사 등 멤버들은 화보 콘셉트 중 하나로 당시 유행한 패션을 '재소환'했다. 박나래의 배꼽티와 청바지, 성훈의 팔 토시 패션 등이 웃음을 자아낸다.

●싸이월드 BGM 리메이크도 눈길

온라인상에서 화력을 키우는 싸이월드 BGM 리메이크 프로젝트도 이 같은 흐름에 힘을 보탠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가장 많이 쓰인 노래 100곡을 추려 요즘 가수들이 재해석해 부르는 프로젝트다. 앞서 가수 소유와 에일리가 미니홈피 인기곡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프리스타일의 'Y'와 박효신의 '눈의 꽃'을 색다른 감성으로 불러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연말 분위기에 잘 맞는 곡을 리메이크해 공개하고 있다. 가수 강다니엘과 챈슬러는 에픽하이의 '플라이'(Fly)로 유튜브 40만뷰를 모았다. 그룹 여자친구 출신 유주는 24일 2004년 SBS '파리의 연인' 주제가로 유명한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를 가창한다.

가수 채연은 아예 싸이월드 콘셉트로 신곡을 냈다. 2000년대 중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렸다 '흑역사'로 남은 글귀인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를 제목 삼은 노래를 지난달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한 편의점 브랜드가 싸이월드 미니홈피 디자인을 차용한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는 등 대중문화계 안팎에서 관련 추억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3일 싸이월드제트의 한 관계자는 "30∼40대 이후 세대들에게는 추억을, 10∼20대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싸이월드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그랜드 슬램' 달성할까… BTS에 쏠린 눈

그래미 '올해의 레코드' 수상 남아
빌보드 핫100 10주간 1위 '압도적'
내일 국회 병역법 개정 논의도 주목

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 각 부문 후보를 발표하는 그래미어워즈에서 거둘 성과에 벌써부터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이들은 앞서 22일 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LA(미국) | 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의 '운명'을 가를 '11월 마지막 주'에 세계적 관심이 쏠린다. 22일(이하 한국시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한 방탄소년단이 24일 그래미의 견고한 벽을 넘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을지, 또 그동안 논란을 모아온 연예인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25일 국회의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을지 국내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의 레코드' 후보 유력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는 24일 오전 2시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내년 2월 열리는 시상식의 후보를 발표한다. 이를 앞두고 올해 '버터'로 전 세계를 녹인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올해의 레코드'는 '올해의 앨범'·'올해의 노래'·'베스트 뉴 아티스트'와 함께 그래미 4대 본상인 '제너럴 필즈'의 하나이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그래미의 '올해의 레코드' 부문은 때로 확실한 우승 후보가 거론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면서도 방탄소년단의 '버터'를 후보작으로 꼽았다. 빌보드도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예측하며 "역사적인 후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 팝 장르 시상 부문 중 하나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10주간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누려 내년도 후보 지명은 물론 수상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될 수도 있을 후보 발표 생중계에도 나선다.

●'병역법 개정안'…병역 특례까지?

방탄소년단은 이튿날인 25일 병역의 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과정을 거친다.

"국위를 떨치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이 2년10개월 동안 경력을 활용한 공익업무 복무로 병역을 대체 수행"하도록 병역특례 제도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이날 진행된다.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만일 이날 관련 규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1992년생)은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분야의 경우 국제콩쿠르 등 순수예술 분야의 입상자(1위)에게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만 잇단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려온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배제되어 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은 최근 "케이팝 시장이 급성장한 데에는 방탄소년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韓영화 기대작' 연말연시 극장가 러시

설경구·이선균의 '킹메이커'로 포문
1월엔 송강호·전도연 호흡 '비상선언'
'해적…' '경관의 피' 등 잇달아 개봉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매트릭스:리저렉션',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

12월 한국 극장가 공략에 나서는 대형 외화 기대작이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적지 않은 한국영화가 개봉을 미뤄온 사이 할리우드 등 외화가 관객에게 낯익은 '프랜차이즈' 작품을 앞세워 관객몰이에 나선다.

이에 연말연시 극장가가 한국영화 기대작의 공백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한국영화가 톱스타급 배우들을 내세워 다시 나선다.

설경구·이선균이 '킹메이커'를 12월 선보이며 포문을 열고 송강호·전도연·이병헌은 김남길·임시완 등과 함께 '비상선언'을, 강하늘·한효주는 '해적:도깨비 깃발'을, 조진웅·최우식은 '경관의 피'를 각각 1월 공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톱스타급 배우부터 차세대 스크린 주역까지 포진한다.

이처럼 각 작품은 흥행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도 갖추고 있다. 한국영화의 각 세대별 대표 배우들의 동시다발적 활약으로 연말연시 극장가는 한국영화의 '잔칫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오겜' '지옥' 열풍 누가 이을까

내달 '고요의 바다' 넷플릭스 공개
공유·배두나, 달에서의 생존기 그려
조인성·한효주 '무빙' 디즈니+ 선봬

'오징어게임'의 이정재와 정호연이 이끈 열풍을 '지옥'의 유아인·박정민·김현주가 이어받았다. 그다음은?

'오징어게임'과 19일 공개된 '지옥'이 한국드라마의 힘을 과시한 가운데 뒤를 이을 주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선 두 작품이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통망으로도 힘을 얻은 만큼 같은 길에 나설 작품에 시선이 쏠릴 만하다. 물론 국내 OTT의 위세도 만만찮다. 모두 공유·배두나, 조인성·한효주, 차승원·김수현 등 한류스타들을 대거 내세운다.

공유와 배두나는 12월2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고요의 바다'를 선보인다. 필수자원이 고갈된 2017년을 배경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달의 연구기지로 날아간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우주 생물학자 배두나를 중심으로 공유, 이준 등이 목숨을 내건 임무 수행에 나선다.

조인성과 한효주는 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를 택했다.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남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고교생과 부모들을 통해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무빙'을 내년 선보인다. 강풀 작가가 직접 대본까지 써 화제이기도 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오징어게임' 출연·제작진 보너스 받아

'오징어게임'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넷플릭스로부터 '보너스'를 받았다. 23일 미국 매체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드라마의 스타급 배우의 회당 출연료보다는 적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모은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에 큰 수익을 안겨줬음을 보여준다. '오징어게임'이 거둬들인 수익은 9억 달러(약 1조67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내한한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부사장은 '오징어게임'의 "콘텐츠 성공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최서은, 800대1 뚫고 미스코리아 진

2021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최서은(26)씨가 진(眞)으로 당선됐다.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대회에서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진이 된 최서은은 "역대 최고령 미스코리아가 아닐까 싶다"며 "시대에 맞는 미스코리아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연기에 관심이 많아 배우고 싶다"면서 "영어를 잘하는 장점을 살려 할리우드로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서은은 미국 사립대학 프랫인스티튜트의 순수미술 회화과를 졸업했다.

'스우파' 전국투어 콘서트 OTT서 공개

최근 최고의 화제를 모은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의 출연진이 펼친 전국투어 콘서트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이 '스우파' 전국투어 콘서트 '스트릿 우먼 파이터 ON THE STAGE' 영상을 12월10일 VOD로 독점 공개한다. 티빙은 21일 오후 7시 열린 공연을 생중계했다. 티빙은 또 12월10일부터 YGX와 훌리뱅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스우파' 출연 8개팀의 비하인드 영상을 차례로 선보인다.

성시경·이도현 등 KBS 연기대상 MC

가수 성시경과 배우 이도현·김소현이 올해 KBS 연기대상을 진행한다. 23일 KBS는 "세 사람이 12월31일 생방송하는 연기대상의 사회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성시경은 KBS 2TV '백종원 클라스'를 비롯해 예능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도현은 올해 화제를 모은 KBS 2TV 드라마 '오월의 청춘'의 주인공으로 시청자 시선을 모았다. 김소현은 KBS 2TV '달이 뜨는 강'에서 평강 역을 맡아 열연하며 드라마 인기를 이끌었다. KBS는 올해 연기대상을 오프라인으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박스 '볼쇼이 발레' 내달부터 상영

멀티플렉스 극장이 잇따라 이색 콘텐츠를 스크린으로 선보인다. 메가박스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 발레단인 볼쇼이의 공연물인 영화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를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상영한다. 2021∼22 시즌 볼쇼이 발레단의 상징적 작품 5편을 영상과 풍성한 음향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12월 '스파르타쿠스'와 '호두까기 인형', 내년 1월 '백조의 호수' 등이다. CJ CGV는 28일 서울 강남관에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파리생제르맹(PSG)과 AS생테티엔의 경기를 생중계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